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YahooFinance: AI 경제에서 Z세대, 가장 소외된다
- YahooFinance: 버클리대 교수 “연준 자산 대폭 축소는 위험”…신임 의장에 반박

[미국 금융]
- WSJ: 시장의 미 이란 평화 협정 기대감 급락
- YahooFinnce: 비트코인 7만 불 아래로…지난 4월 이래 최저치

[AI 기업들]
- Bloomberg: 젠슨 황 "Marvell, 다음 1조 달러 기업" 전망에 주가 25% 폭등
- CNBC: Micron도 엔비디아 덕분에 1조 달러 기업으로

[주택]
- CNBC: 미 주택 보험료 3년간 24% 폭등… 절약하는 팁은?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Bloomberg: FedEx 화물, “자율주행 트럭 기술 이미 준비”
- CNBC: 아마존, 이달 23일부터 나흘간 ‘프라임 데이’ 개최…인플레 자구책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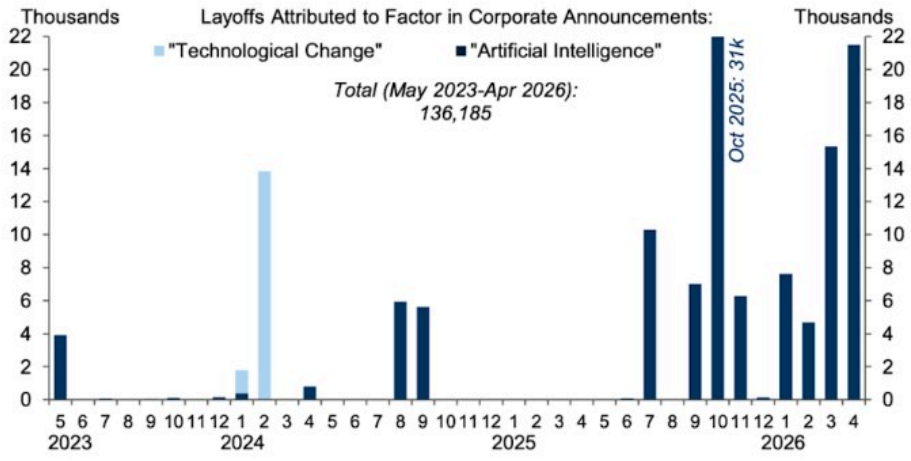
---

## [미국 경제]

**YahooFinance: Gen Z is losing the most in the AI economy—and Goldman warns it’s about to get worse**
**AI 경제에서 Z세대, 가장 소외된다**

-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는 미국인의 월간 순 일자리 수가 1만 6천 개에서 1만 1천 개로 줄어들었는데, 특히 청년층과 초급 화이트칼라의 위기는 오히려 커졌다.
-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 감소 폭이 둔화한 이유가 AI의 사무직 대체 속도가 줄어서가 아니라, 인프라 구축 등 현장직 블루칼라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착시 효과라고 분석했다.
- 최종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전선 설치 같은 하드웨어 구축 작업이 끝나면, 경력이 필요 없는 첫 직장을 구하려는 Z세대의 취업난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. 이런 업무에 AI가 사용되기 때문이다.

**Exhibit 22: AI Was Cited in Layoff Announcements Affecting 21.5k Employees in April**




Source: Challenger, Gray & Christmas,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

기사

**YahooFinance: Fed Warned on Shrinking Balance Sheet in Lookback at Powell Era**
**버클리대 교수 "연준 자산 대폭 축는 위험"...신임 의장에 반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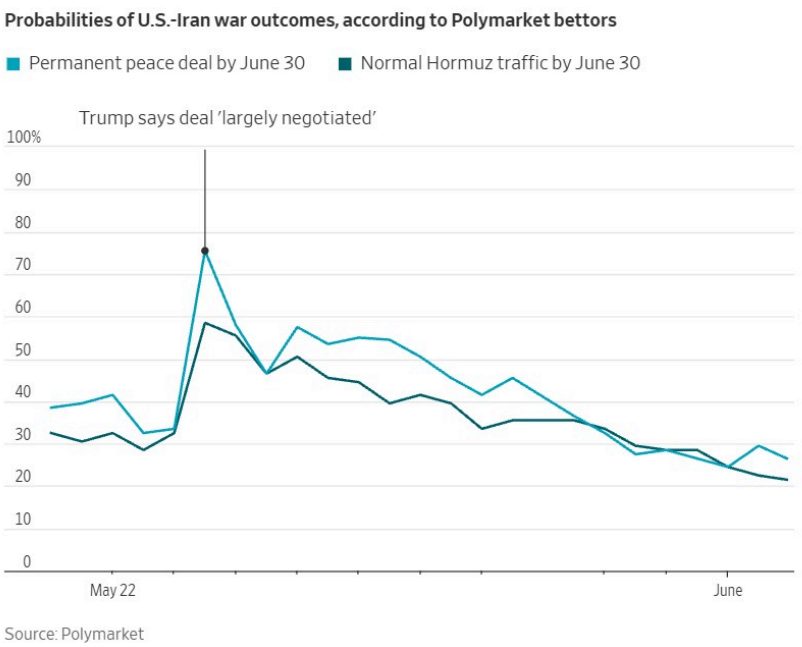
- 버클리대 David Romer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신임 연준 의장의 말대로 자산을 크게 축소하면 실익이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.
- 워시 의장은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산 축소(양적 축소)를 주장해 왔다.
- Romer 교수는 연준이 국채 등 연준 자산을 급격히 매각해 시중의 돈을 흡수할 경우 유동성이 메말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, 결국 자산 축소에 따른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위축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.

기사

**[미국 금융]**

**WSJ: Chances of U.S.-Iran Peace Deal Plummet on Polymarket**
**시장의 미 이란 평화 협정 기대감 급락**

- 트럼프가 지난 5월 23일 소셜 미디어에 평화 협정이 "대체로 협상되었다"라고 올린 직후, 시장에서는 6월 말까지 평화 협정 타결 가능성을 75% 이상,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가능성을 60% 가까이 내다봤었다.
- 그러나 양국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고 핵 프로그램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대감은 크게 떨어졌다.
- 현재 트레이더들이 예측하는 6월 말 타결 확률은 27%,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확률은 22%로 일주일 만에 급락했다.




기사

**YahooFinance: Bitcoin falls below $70,000, hitting lowest level since April**
**비트코인 7만 불 아래로…지난 4월 이래 최저치**

-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화요일 4% 이상 급락하며 4월 8일 이후 최저치인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.
- 이번 하락 원인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(MSTR)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.
- 이 회사는 일부 금액 즉 2백50만달러 어치를 매각했다고 밝혔다. 매도량 자체는 전체 보유량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, 그러나 공격적인 매수 전략에 변화가 준 것으로 보여 전체 비트코인의 하락이라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.

기사

**[AI와 기업들]**

**Bloomberg: Marvell Soars After Nvidia Chief's $1 Trillion Stock Call**
**젠슨 황 "Marvell, 다음 1조 달러 기업" 전망에 Marvell 주가 25% 폭등**

-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대만 행사에서 "실용적 AI 시대가 도래했다"며, 마벨 테크놀로지가 현재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'1조 달러' 가치로 성장할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.
- 이에 뉴욕 증시에서 마벨 주가는 26% 폭등했다.
- 이로써 마벨의 시가총액은 2,39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, 올해 들어서만 약 222% 상승했다. 한편 엔비디아는 3개월 전 양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마벨 지분 20억 달러를 인수한 바 있어, 이번 발언이 자사 이익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기사

**CNBC: How a nudge from Nvidia propelled frugal Micron into the AI boom and a $1 trillion market cap**
**Micron도 엔비디아 덕분에 1조 달러 기업으로**

- 1년 전 시가총액 1,0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'1조 달러' 기업을 향해 극적으로 질주하고 있다. 이는 마이크론 특유의 '비용 절감 전략' 덕분이 아니라, 엔비디아의 견인으로 AI 붐의 중심에 올라탄 결과다.
- 수십 년간 마이크론은 중고 장비를 쓰고 최첨단 투자를 피하는 비용 절감 경영으로 생존하며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3대 메모리 업체로 살아남았다.
- 그런데 3년 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마이크론 CEO를 만나 AI의 핵심 병목 구간이 메모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. 결국 엔비디아의 조언으로 마이크론은 기존 기술과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. .

기사

**[주택]**

**CNBC: Homeowners insurance premiums have soared in recent years. How to reduce your costs**
**미 주택 보험료 3년간 24% 폭등… 절약하는 팁은?**

-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주택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했다. 소비자 관련 단체 CFA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, 평균 주택보험으로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24% 급등해 연간 3,303달러에 달했다.
- 절약 팁 관련해서는 미국 내 주택 보험료가 폭등한 가운데, 태풍 셔터 설치나 지붕 보강 등 재해 대비 공사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
-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를 최대 25%까지 아끼는 것이 가능하다.
- 장기적인 보험료 상승을 막으려면 자잘한 파손에 대한 소액 청구를 자제하고 청구 이력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,

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

**Bloomberg: FedEx Freight CEO Says Self-Driving Trucks Are Ready for Prime Time**
**FedEx 화물, “자율주행 트럭 기술 이미 준비”**

- 북미 최대 화물 운송 업체인 FedEx Freight의 CEO는 대형 자율주행 트럭 기술이 이미 준비되었다고 밝혔다.
- 현재 트럭이 차고지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려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의 99.9%를 운전자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.
- CEO는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 도로를 달리는 시기는 정부의 허가에 달렸으며, 앞으로 '규제'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. 한편, 이 회사는 연간 8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모회사 페덱스에서 분사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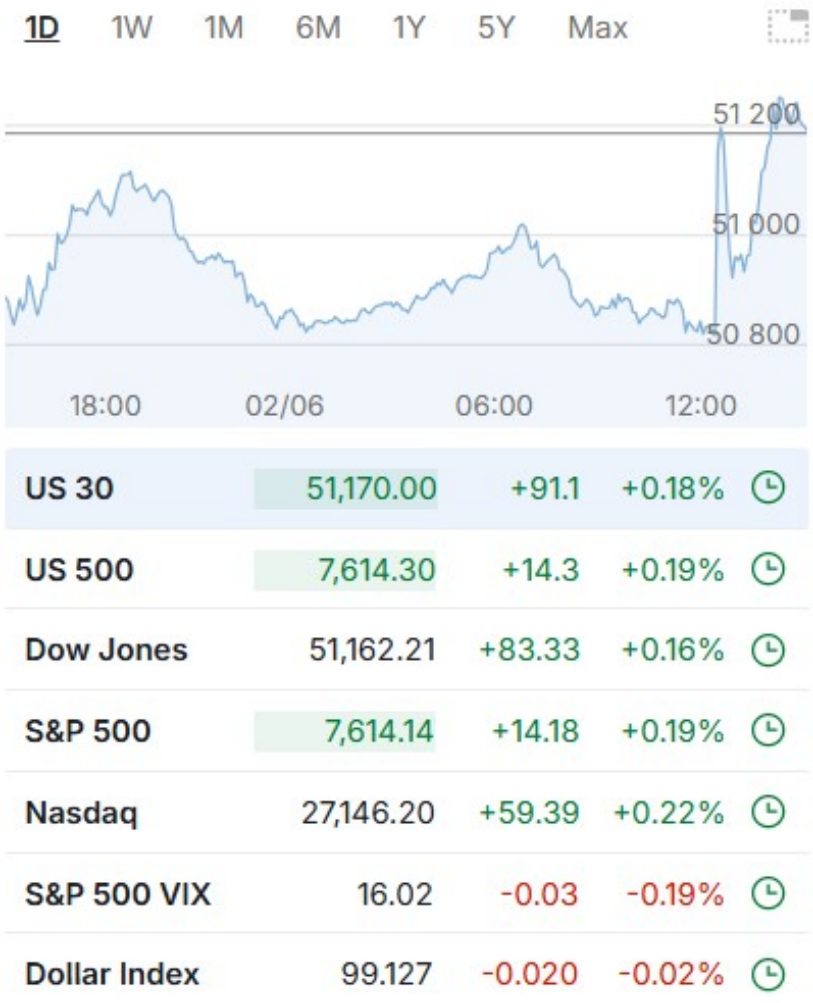
**CNBC: Amazon’s four-day Prime Day event starts June 23, as shoppers battle inflation**
**아마존, 이달 23일부터 나흘간 ‘프라임 데이’ 개최…인플레 자구책**

- 아마존의 연례 대규모 할인 행사인 '프라임데이'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.
-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직후 열린다.
-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,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저렴하게 비축하기 위해 프라임데이를 비롯한 할인 행사로 몰리고 있다.

기사

**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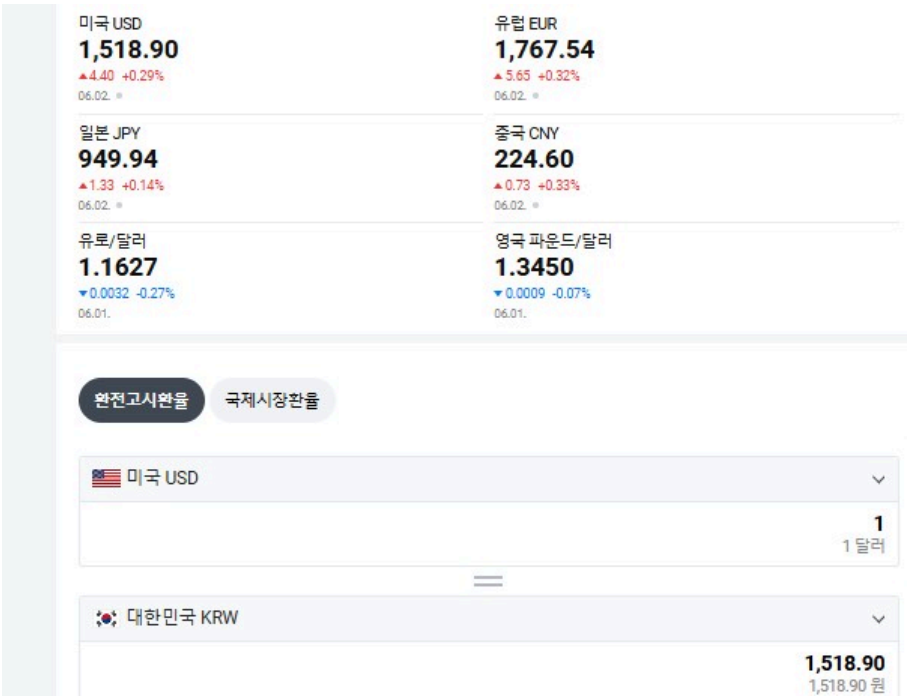
---


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US 30 | 51,170.00 | +91.1 | +0.18% |
| US 500 | 7,614.30 | +14.3 | +0.19% |
| Dow Jones | 51,162.21 | +83.33 | +0.16% |
| S&P 500 | 7,614.14 | +14.18 | +0.19% |
| Nasdaq | 27,146.20 | +59.39 | +0.22% |
| S&P 500 VIX | 16.02 | -0.03 | -0.19% |
| Dollar Index | 99.127 | -0.020 | -0.02% |

## U.S. Treasurys

| | COUPON (%) | PRICE CHG | YIELD (%) | YIELD CHG |
|---|---|---|---|---|
| 30-Year Bond | 5 | 1/32 | 4.964 | -0.007 |
| 10-Year Note | 4.375 | 0/32 | 4.454 | 0.001 |
| 7-Year Note | 4.25 | 0/32 | 4.308 | 0.006 |
| 5-Year Note | 4.125 | 0/32 | 4.174 | 0.009 |
| 3-Year Note | 3.875 | 0/32 | 4.092 | 0.003 |
| 2-Year Note | 4 | 0/32 | 4.045 | 0.010 |
| 1-Year Bill | 0 | 0/32 | 3.798 | -0.001 |
| 6-Month Bill | 0 | 0/32 | 3.765 | 0.002 |
| 3-Month Bill | 0 | 0/32 | 3.709 | 0.007 |
| 1-Month Bill | 0 | 0/32 | 3.696 | 0.000 |
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